

K대생 집단난동 중간보고서

문서번호 ; ew-960725

수신 ; 이화인

참조 ; 관심있는 모든 분들

발신 ; 해방이화 제28대 총학생회 & 여성위원회

상황보고 하나, '이대와 고대 총학생회의 논의'

- 5.29 사건발생이후 고대 총학생회와의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 대책회의에서는 난동사건의 '성폭력'규정에 합의에서부터 앞으로의 해결방안까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논의는 주로 이대측의 요구안을 고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로 '5대 일간지 공개사과문'과 '주동학생의 학칙상 처벌'이 핵심사안으로 제기되었다.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은

- ① 공개사과문의 경우 할 용의가 있으나 광고형식의 사과문 게재에 따르는 비용이 문제시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고 총학생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다. 고대 학교당국의 경우 공개사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 ② 학칙상 처벌의 경우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 갔다는 증거도 없고, 난동중 일부를 주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해 이미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사회에서의 문제를 학교당국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주적 학생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칙상 징계요구의 철회를 요구한다.

- 이에대해 이대 총학생회의 입장은

- ① 공개사과문에 대해 고대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을 강제해서라도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동제를 방해받은 이화인을 대표하여 이대 총학생회가 손해배상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다. 공동기자회견의 경우 이 사건이 이미 사회적으로 가십화 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기사를 믿고 기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공개사과문의 내용과 함께 이대의 입장을 첨가한 공동성명서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공동기자회견은 동의하지 않는다.

② 학칙상 처벌을 요구한 것은 그 난동사건이 엄연한 잘못이라는 것을 고대학교차원에서 제대로 인정하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다. 즉, 강제력있는 학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선택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고대사건에 대한 '대학내의 낭만적 헤프닝' 혹은 '젊은이의 귀여운 개기'등의 오해에 대한 불식을 의미하는 행위가 된다.

- 이 과정에서 고대 학교당국은 주동학생 7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리고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7명 전원의 1년 유기정학이 각 단대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상태이고, 고대 총장의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에대해 고대 총학생회는 '2만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동책임 연서를 고대학우들에게 받고 있고, 많은 고대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언론의 경우 고대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그러나 이대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감정적 입장으로 한차례 기사를 쓴 바 있다.

- 징계가 확정시되는 과정에서 고대 총학생회는 주동자로 지목된 6명의 학생과 함께 이대 총학생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는 이대가 왜 학칙상 처벌을 요구했는가의 이대측 입장과 학칙상 처벌에 동의할 수 없는 고대측 입장을 확인했다.

- 그러자 고대 총학생회는 '이대가 학칙상 징계요구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양고 총학생회간의 논의는 그 어떤것도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7월 초에 확정되기로 한 학칙상 처벌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아직도 확정되어 발표되지 않고 있다.

「X-file」 ;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프닝 1

「이대 총학생회 학칙상 징계요구를 철회하다~!」

고대와 의 2차회의에서 고대총학생회는 학칙상 징계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초기의 근거는 고대 학교당국이 무분별한 중징계방침을 내림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생에 대한 배려요구였다. 이대 총학생회의 경우 학칙상으로 제적등의 중징계만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음에 동의하고, 그에 대안적으로 '강제력 있는' 안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난동가담자의 성폭력지킴이 활동을 학교의 강제하에 진행하거나 고대 학교에 강제력 있는 여성학강의 진행 등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대도 학칙상 징계요구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

이에 고대 총학생회는 이대 총학생회가 학칙상 징계를 철회했다는 자보를 고대에 붙였다. 그리고 전혀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언설들 '주동자들이 성폭력 지킴이 활동을 하는것'등을 학칙처벌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2만 고대인 연서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강제력에 대해서 일찌기 고대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프닝 2

'고대학생들이 이대 총학생회에서 6시간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이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고대 총학생회장과 조직국장, 그리고 주동학생 6명이 이대를 무단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는 이런식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거절하였으나 고대 총학생회장은 '주동학생들이 자신들이 왜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있다. 그에대해 이대형들의 생각을 생생히 들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여 결국 2시간정도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현재 고대인들은 학칙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와 '주동자들이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대는 '학칙처벌에 대한 고대인의 정서는 그것이 중징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적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대도 단순중징계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대에 대한 처벌요구 철회로 소급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와 '우리가 문제시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의 폭력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폭력사태를 야기시키는 이화광장에서의 난동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화광장에서의 난동자체가 성폭력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차 설명해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화광장에 대한 침탈이요, 고대영역의 선언이었다. 고로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은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후 모 일간지에 '고대생이 6시간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동 '이대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동'의 기사가 나왔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고대 총학생회. 고대 학교당국. 고대

그들의 반응은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발로일 뿐 아니라 기존 정치판의 정치활동과도 매우 흡사하다. 고대 학교당국은 강경하게 일탈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고대 총학생회는 인정론과 전체론을 이끌며 그것을 막아내고 있다. 처음에 중징계를 먼저 제시한 고대 학생처장의 경우 그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데에 대한 책임론을 운운하며 자리를 사퇴하고 학교출근을 거부했다. 고대 학교당국의 경우 강경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처벌을 제시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학생회의 연서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의 표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즉, 2만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생산하는 것이다.

모 정당에서 사건이 터지면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임을 한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적으로 그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 책임자는 어느새인가 그 정당의 요직에 다시 올라가 있다.

광재집단에서 그 구성원이 잘못을 하면 모든 집단이 그를 대신하여 백배사죄한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것을 강요한다.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경우에 있어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나이의 의적이고 우정이기 때문이다.

상황보고 둘. '이대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 .

-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초기의 활동은 고대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의 한계지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다.

- 이대는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몇백명의 일탈자가 우연히 고대에만 입학하게 되어 벌어지는 헤프닝이 아닌 고대사회가 우리 대학사회가, 혹은 우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사건발행후 진행과정에서의 고대측과 사회여론측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양고의 사건이 아닌 사회인식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이에 이대는 '또하나의 문화'의 월례논단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크리스찬 아카데미'캠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얼마전 여성학과 대학원생들의 논문발표를 통한 담론적 분석에 까지 참여하였다. 즉, 이것은 단순히 이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에 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로 이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가지고 강력히 한다.

① 이 사건발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대'라고 묶인 우리조차 성의 문제에 대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주의의 메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의 빈약한 논리구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이대'가 여성주의 문화를 가지는 것에 관하여, 우리들의 다양한 인식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 하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 과감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고대난동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찢리는 것을 느끼는 것과 관계가 있다.

② 대학사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 '매우 진보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 대학사회는 방만하기는 할지언정 진보적이지는 않다. 지금도 많은 대학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낭만적 사랑이라는 각본화에 왜곡된 남녀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학

사회에 대한 성문화, 성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급한 시기라고 본다.

대학인의 경우 너무나 모순된 양면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반한 봉건적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전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③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대안들은 단순한 성관계를 갖는것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조금 더 세련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지점이 다분하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핵심은 성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녀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그 둘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양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이 단순히 성기삽입의 문제로 사고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남성집단이 모든 여성집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포상태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물리적, 사회권력적 우위인 자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의 개념까지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하다.